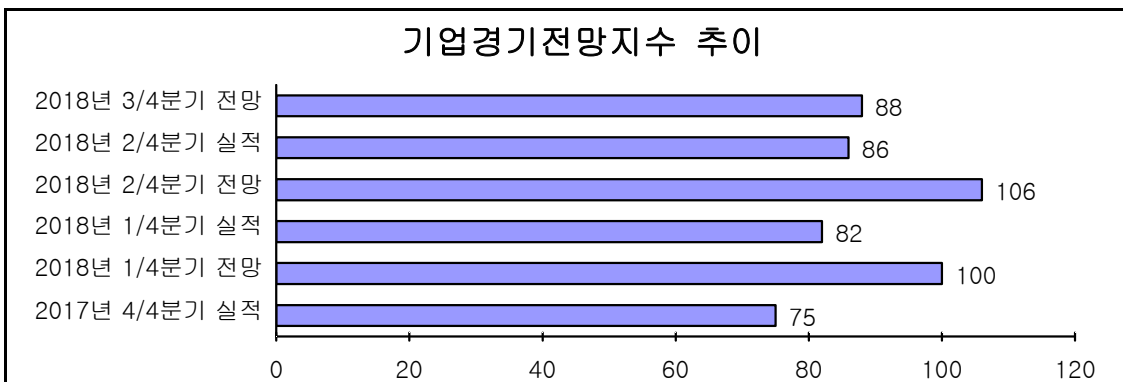
 영주상공회의소 調査結果	2018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회원조사과 054)632-8830	관내 30개 제조업체 조사 결과

영주상공회의소(회장 조관섭)는 최근 관내 제조업체 30개를 표본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2018년도 3/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는 지난분기보다 '18' 포인트 하락한 '88' 을 기록했다. 실적추정치는 전 분기보다 '4'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 한 것으로 0 ~ 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분별 기업경기전망지수 추이

	2017년 4/4분기 실적	2018년 1/4분기 전망	2018년 1/4분기 실적	2018년 2/4분기 전망	2018년 2/4분기 실적	2018년 3/4분기 전망
체감경기	63	93	66	103	93	93
매출액	78	107	88	110	96	89
영업이익	76	97	82	102	78	92
자금조달여건	80	100	86	110	77	77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2018년 3/4분기 기업경기 전망은 체감경기 93, 매출액은 89, 영업이익 92, 자금조달여건 77 로 대체적으로 3/4분기 전망은 2/4분기 전망에 비해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의 대내외 여건들 중에서 주요 영향을 주는 사항에는 ‘노동환경변화’ (48.6%), ‘환율 변동’ (20.0%), ‘6월 지방선거’ (8.6%), 금리인상 가능성 (8.6%), 유가상승 (8.6%) 등 순이었다. 특히, ‘2018년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 에 대해서는 기업의 53.3%가 ‘불확실하다’ 라고 응답했으며, ‘채용계획이 없다’ (30.0%), ‘채용계획이 있다’ (16.7%) 순이었다.

하반기에 채용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상승’ (66.7%)으로 인한 부담과 ‘매출 감소’ (16.7%),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 (8.3%)등 이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환경 변화가 기업에 크게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66.7% 였으며, 일부 부담이 된다는 기업의 응답도 23.3% 였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여 대응방안을 세우지 못한 기업이 56.6% 이며, ‘유연근무제 활성화’ 또는 ‘집중근무시간 관리’ 등을 검토한다는 의견이 16.7% 였다. 또한 최저임금제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채용 축소(26.7%)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도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의 노동환경 변화, 환율변동, 금리인상 가능성, 유가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긍정적인 전망보다 우세하며, 이러한 부정적 전망이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번 지역 상공인들 전망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 조사기간 : 2018. 5. 29 ~ 6. 12 (휴일제외 10일 동안)
- 조사대상 : 영주상공회의소 관내 제조업체
- 조사방법 : 전화, FAX
-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100 미만일 때는 반대임
- BSI 지수=[(호전예상업체수-악화예상업체수)÷ 전체응답업체수] × 100 + 100
- BSI전망치는 다음분기에 대한 전망치임